

# 분신이 남긴 '불씨'... 순천시 공무원들 '火들썩'

### 자살 민원인 작성 문건에 금품 제공 정황 "노트북 컴퓨터에 리스트 있다"說 파다 경찰, 유족과 접촉 문건 진위여부 파악 나서

순천 40대 남성 분신 자살 사건의 후폭풍이 거세다. 순천시의 불통 행정이 초래한 사건으로 마무리되는가 싶더니 돌연 공무원 비리 의혹 사건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허가 과정에서 금품 제공 정황이 담긴 문건이 나돌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된 데 이어 추가 의혹이 담긴 파일이 있다는 설(說)이 불췌처럼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달려 있다는 말까지 흘러나오면서 순천 공무원 사회도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유랑농지 건축허가 과정에서 누가 연루돼 있는지, 누가 알마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저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성 소문도 무성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트북에는 경찰이 확보한 일부 문서의 나머지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인지 노트북을 갖고 있는 유족 측과 접촉하기 위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는 게 지역 사회의 전언이다. 경찰이 최근 입수, 사실 확인중인 A4용지 5장 분량의 문건보다 훨씬 많은 내용이

적지 않다. 문건에는 서씨가 우량 농지에 가스 충전소를 건립하기 위한 건축 허가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이 확보한 문서는 전체 문서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서씨가 충전소 허가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브로커 역할을 한 A씨에게 금품을 건넨 내용이 담겨 있다. 문건에는 이 지역에서 건축자재 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충전소 개발 행위 허가 심의를 담당하는 '도시계획 개발분과위원회'의 통과에 필요하며 4000만원을 요구해 건넸었다는 내용과, 최종 허가가 나지 않아 A씨로부터 35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경찰은 복사된 문건의 작성자가 서씨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문건 내용의 사실 여부도 파악 중이다. 순천시 주변은 허가 비리 의혹에 연루됐다는 인사들의 '리스트'가 나돌면서 언론보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공무원을 모두 죄인 취급하는 듯한 분위기에 반발하는 기류도 엿보인다. 출·퇴근 인사말로 "병단에 누가 포함됐느냐"는 등의 농담 반 진담 반의 말을 주고받는가 하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모든 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창조마을 조성사업 뇌물비리도 '창조적'

### 무자격 업자 공사 묵인 자재 두께 얇아 금가고 조경수 목목줄여 돈 빼 서부경찰, 20명 입건

광주시 서구의 '창조마을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뇌물 등을 주고 받은 공무원·건설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서부경찰은 26일 상무 2동 창조마을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공사를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전 동장 이모(56)씨 등 공무원 4명과 추진위원장 국모(72)씨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부적합한 자재를 납품하거나 납품 수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가로챈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조경업자 이모(여·49)씨 등 공사 관련 업자 14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동장 이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

하면서 공원 정비 사업 명목 등으로 받은 사업비 3억9000만원 중 5800여 만원을 부당하게 빼돌린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 등 공무원들은 무자격 공사업자가 공사를 진행하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대가로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부적합한 자재를 사용하고 조경수 식재 수량을 애초 계획보다 축소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빼돌렸다. 이로 인해 지난 2011년 마을 내 상무 2동 쌍향공원에 설치된 무대가 부실시공으로 인해 금이 가고 부러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업이 수의 계약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역공동체 부활 및 지속가능한 마을 조성을 위한 일자리(마을기업)·소득 창출 등을 위해 30억원을 투입해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왔다. /박정환기자 halo@kwangju.co.kr



광주역 앞 광장 "철도 민영화 저지" 민주노총 조합원, 광주 시민단체 등 1000여명이 26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광주역 앞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철도 민영화 저지, 총파업 승리,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또...의사 사칭 음란전화 40대 징역 1년

### 광주지법, 신상정보 공개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정지선 판사는 26일 의사를 사칭해 음란 전화를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9시에

광주 남구 한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41·여)에게 전화해 광주 모 병원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논문작성에 필요하니 설문조사에 응해 달라"며 성관계 횡수, 신체 구조 등을 묻는 등 음해 초부터 8개월간 26차례에 걸쳐 음란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11년 10월에도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현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합헌'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규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현재는 26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이 영업제한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가 다른 유통업자들과 대형마트를 차별 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현재는 유통산업발전법 자체로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매출 2회 의무휴업제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 광양서 불법체류 외국인 숨진채 발견

### 경찰, 사건 경위 조사

25일 오후 1시께 광양시 덕려리 A모텔에서 카자흐스탄 출신 S(41)씨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주인 김모(51)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S씨는 발견 당시 양쪽 엉덩이와 등 목 등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김씨는 경찰에서 "최근 화상을 입고 돌아와 거동이 불편한 모습을 보였고 술

을 많이 마셨다"고 진술했다. S씨는 5일 전까지 외국인 근로자 등 일행 5명과 함께 투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불법 체류자인 S씨가 지난 8월 말부터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생활해 왔다는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광양=박정환기자 pyj4079@

## 13·15살 가출소년 협박 성매매 시켜 500만원 횡령 뒤편

○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10대 가출소년 2명에게 한 달간 성매매를 시켜 수백 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서행. ○26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20)씨는 지난날 9일부터 한 달간 가출 여중생 A(15)·B(13)양 등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뒤 확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횡령 혐의. ○김씨는 A양이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하자 성매매 사실을 가족·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매매를 계속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에서 "동의하에 성매매를 알선했고 돈도 나눠 가졌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목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건적이나 탐방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381-0061,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라남도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

입학문의 ▶ 062)605-1114, 1027

## 2014 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학과	20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5
	유아교육과	3
예능	음악학과 (피아노, 성악, 현악, 관·타악, 지휘, 오르간, 작곡, 플레식기타, 교회음악)	5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 보컬, 재즈, 트럼펫, 트럼بون,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콘텐츠, 싱어송라이터 등)	5
총 계		39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3. 12. 19(목) ~ 23(일)  
 - 전형일: 2014. 1. 3(금)

■ 장학제도  
 대학기 약 30% 이상의 학생들에게 각종 장학혜택이 주어지며, 기타 입학특별장학금, 보훈장학금, 독지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등 지급

www.kwangshin.ac.kr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왕산동2길 36